

완전함을 추구하는 웹디자이너 김주영입니다.



PROFILE

김주영
1997.08.06
+82 010-5811-5127
romant_ico@naver.com

EDUCATION

2016.03 – 2019.02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2013.03 – 2016.02
홍천여자고등학교

CERTIFICATE

2012.06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2012.01 / 2011.11
GTQ 1/2급

01 ————— 완전한 길을 향한 올곧음.

저는 어느 한가지에 꽂히면 남들이 뭐라건 나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제 성격은 강원도 홍천이라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 디자인을 배우기엔 열악했던 상황 속에서도 꿈을 키워나가는 발돋움이 되었습니다. 홀로 학습하여 기어코 컴퓨터그래픽스 자격증을 따왔던 중학생 시절의 제게 선생님들은 ‘악바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모두 디자인이 아닌 공부를 선택하여 안전한 길을 가길 바랐지만 저의 이유 있는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곧음 하나로 입시 미술을 배우지 않고도 나만의 길을 개척해나가며 쌓은 노력의 흔적들로 인정을 받아, 예술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해 비로소 웹디자이너를 향한 포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숲을 보는 디자이너. ————— 02

모든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시작하듯이 퍼블리싱 또한 뼈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웹디자이너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좋게 꾸며놓는 것이 아닌, 멀리 보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웹을 꾸며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숲을 보는 웹디자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웹디자인 뿐만 아니라 탄탄한 기획력을 갖추려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학기 중에 진행했던 두 차례의 프로젝트에서 전반적인 기획과 개발을 도맡았고, 이를 통해 보다 더 기획과 개발을 이해함으로써 성장하고 목표를 향해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03 ————— 끝없는 레이스를 위한 뚝심과 욕심.

모두가 끝이 어딘지 모를 레이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끝없는 레이스를 지치지 않고 달려나가기 위해 뚝심 있는 웹디자이너가 되고자 합니다. 한번 붙잡은 코드는 오류가 나지 않을 때까지 놓지 않고 풀어나가고, 힘든 상황이 닥쳐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뚝심은 욕심과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과를 나와서 개발에 이어 기획까지 손을 뻗는 저에게 누군가는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욕심 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산다면 쉽게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방면으로 자기계발을 멈추지 않고 욕심과 뚝심을 원동력으로 끝없는 레이스를 오랫동안 달리는 웹디자이너가 되고자 합니다.